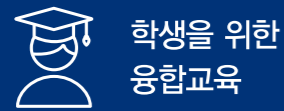


YONSEI MIRAE VISION 2035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대학



교육	지산학	글로벌	연구	경영
AX기반 교육 혁신 및 학생성장 중심 학습환경 조성	지산학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고도화 및 성과 창출	연구지원 고도화 및 융복합 연구역량 강화	전략적 경영 고도화 및 참여와 소통의 문화 정착
① AX기반 교육과정 혁신 및 학사운영 고도화	③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협력 강화	⑤ 글로벌 대도약을 위한 기반 고도화	⑦ 연구지원 인프라 고도화 및 성과 창출 기반 구축	⑨ 성과기반 경영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확립
② AX기반 교수학습 혁신 및 학생성장 지원 고도화	④ 지역산업 수요기반 산학협력 고도화	⑥ 글로벌 교육·산학협력 성과 창출 지원	⑧ 융복합 연구역량 제고 및 실용성과 창출	⑩ 대학 정체성 강화 및 참여 기반 소통문화 확산

YONSEI MIRAE VISION

2035

비전

교육목표
·
인재상

핵심가치

5대
영역별
추진목표

10대
전략 과제



CONTENTS

4

GREETINGS

4 하연섭 미래캠퍼스부총장 신년사

6

SPECIAL THEME

6 BK21대학원혁신지원사업 하연섭 총괄책임자
8 BK21 교육연구단(팀)

16

INTERVIEW

16 양정석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18 이유진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 23
20 황세호 미래총무처 안전관리팀 과장

22

RESEARCH FRONTIER

22 임대운 교수팀(화학및의화학)
24 이다솔 교수팀(의공학부)
26 정광식 교수팀(시반도체학부)

28

CAMPUS NEWS

28 2025학년도 2학기 캠퍼스 주요 뉴스

34

DONATION

34 기부 소식

36

NEW FACE

36 신입 교직원

2026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래캠퍼스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모든 구성원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우리 대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우리 캠퍼스는 고귀한 창립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시대 고등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며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저는 '미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캠퍼스는 지난해 성과를 과시하기보다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와 질서를 세우고 체계와 환경을 정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점에서 2025년은 미래캠퍼스의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밀도 높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학 운영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2025년 우리 캠퍼스는 행정기관명을 '원주'에서 '미래'로 일괄 전환함과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부' 중심 구조를 '팀'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총장 직속부서·행정부서·부속기관·대학(원) 행정팀 전반을 재설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협업의 유연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융합·AI·창업·인권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구조적 전환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캠퍼스 중장기 발전계획 「YONSEI MIRAE VISION 2035」를 수립했습니다. 2019년 계획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고 제20대 총장 및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공약을 반영하며, 총 126회에 이르는 회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이에 '학생을 위한 융합 교육, 세계를 위한 선도 연구, 지역을 위한 봉사와 기여'라는 핵심적 가치를 도출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이 있었습니다. 전 부서 예산 1% 감액 편성을 통해 약 2.7억 원의 전략 재원을 확보하여 이를 정부재정지원사업 대응을 위해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강원 RISE 사업 및 K-STAR 비자트랙 사업 선정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절감 차원에서가 아니라, 재정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자 한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연구와 교육 역량, 그리고 지역 협력 사업에서 실질적 성과를 축적했습니다.

미래캠퍼스는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탁월한 역량과 잠재적 가능성을 구체적인 지표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캠퍼스는 지방 사립대학으로서는 매우 드문 규모인 4단계 BK21 교육연구단(팀) 11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BK21 협약액이 전년 대비 약 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작년 10월부터 5단계 BK21 사업 TF를 가동하여, AI 기반 융합, 지산학협력, 글로벌 협업, 대학원 거버넌스 혁신을 핵심 축으로 중장기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공모 대응을 넘어, 미래캠퍼스의 연구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연구 성과 역시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국제전문학술지(SCCI·SCI) 논문은 전년 대비 48편 증가한 380편, 국내전문학술지(KCI) 논문은 22편 증가한 268편을 기록하였으며, JCR IF 상위 5% 이내 논문도 7편 증가한 35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YM-KIST 학연 협력 사업, 공동융합연구 과제 운영 등은 융복합 연구의 실질적 성과를 축적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양정석 명예교수님의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상을 비롯하여 각 분야 전공 교수님들이 학문적 탁월성으로 이룩한 성취들이 이 좁은 지면에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교육과 입학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수시모집 경쟁률이 10.48대 1에 달하여, 수도권 제외 전국 5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캠퍼스 기준 15년 만의 최다 지원자 12,550명이라는 수치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 대학이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도적인 RC교육, 전공 자율선택제, 영어 트랙 운영,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개선은 그 신뢰를 이끈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캠퍼스는 강원 RISE 사업에 총 11개 단위과제, 1차 연도 사업비 131억 원 규모로 선정되어 강원권 사립대학 중 최대 규모를 수주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미래캠퍼스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캠퍼스는 생명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며 캠퍼스 환경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공간인 캠퍼스의 환경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더욱 안전한 캠퍼스로 조성하기 위하여 석면 철거, 냉난방 설비 교체, 연구실 안전 투자, ISO 45001·14001 국제 인증을 동시 취득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학생 복지 개선, 교직원 식당 입점 등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원주 에브리씽 페스티벌을 공동 주관하여 5만여 명의 시민이 우리 캠퍼스에서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깊은 소명 의식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캠퍼스 구성원 여러분들이 함께 이룩한 것입니다. 대학공동체가 지속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각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애써주시는 연세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미래캠퍼스 가족 여러분! 2026년은 계획을 점검하고, 성과를 관리하며, 실행으로 나아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 고등 교육의 화두인 AI, 융합, 산학 협력, 창의 인재, 그리고 세계와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역할을 고민하며 우리 캠퍼스의 방향성을 더욱 정교히 할 시기입니다. 미래캠퍼스는 이를 계기로 교육의 본질을 더욱 날카롭게 직시하고 과감히 앞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도 교수님들의 교육과 연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성경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10)

연세 가족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이 다를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대학 공동체를 세우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구성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성취와 희망이 가득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부총장 하연섭



AI, 융합, 글로벌, 체질 개선 핵심

새롭게 만든 Yonsei MIRAE Vision 2035에서는 5대 전략으로서, 지산학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지산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고도화 및 성과 창출(글로벌), 연구 지원 고도화 및 융복합 연구 역량 강화(연구), AX 기반 교육 혁신 및 학생 성장 중심 학습환경 조성(교육), 전략적 경영 고도화 및 참여와 소통의 문화 정착(경영)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은 이 다섯 가지 중 경영을 제외한 지산학, 글로벌, 연구, 교육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5단계 BK21이 시작될 예정이고, 현재 교육부에서는 5단계를 위한 기획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기본 방향은 AI, 융합, 글로벌, 대학원 전체의 체질 개선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미래캠퍼스의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내용도 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미래캠퍼스가 BK21에서 6개 교육연구단과 5개 교육연구팀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캠퍼스의 연구 경쟁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 경쟁력 바탕으로 산학연 협력 주도

BK21은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교육부 사업은 정부의 교체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있지만, BK21은 4단계까지 지속될 만큼 우리나라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미래캠퍼스가 BK21에서 6개 교육연구단과 5개 교육연구팀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캠퍼스의 연구 경쟁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저는 부임하면서 미래캠퍼스의 미래에 Merging Industry, Research, and Advanced Education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산학연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캠퍼스는 연구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학연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화·연구환경과 장학금 지원 초점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은 4단계 BK21부터 도입된 사업인데, 기존의 개별 사업단(팀)에 대한 지원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사업단(팀)만의 고립된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전체의 역량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4단계 BK21을 기획하면서 제가 제안하고 설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애착이 갑니다. 우리 미래캠퍼스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제화 지원, 대학원생을 위한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 대학원생 연구 몰입도 제고를 위한 장학금 및 연구 환경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지원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이 대학원 전체의 체질 개선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BK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연구단(팀)을 포괄할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11개 교육연구단(팀)의 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글로벌 경험 확대를 위한 지원,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대학원생을 위한 교육·연구 환경 개선 비용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AI·융합·글로벌 탁월한 연구 능력 산학협력 이끈다

BK21, 대학원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연구중심대학 전환 위한 기반 조성

하연섭

BK21대학원혁신지원사업 총괄책임자
미래캠퍼스부총장

BK21 교육연구단 ①

맞춤형 NBIT 융복합 의료기기 교육연구단

의공학의 미래 설계

의공학과 | 이상우 교수팀

의공학과는 국내 의공학 교육과 연구의 역사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 최초로 1979년 개설된 이후, 의학과 공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 연구를 선도하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과 궤를 함께해 왔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맞춤형 NBIT(Nano-Bio-Information-Technology) 융복합 의료기기 교육연구단과 이를 이끄는 이상우 교수가 있다.

의공학과는 2006년부터 BK21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최근 BK21PLUS 사업에서는 우수연구단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순한 연구 실적을 넘어, 교육·연구·산학 협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온 결과다. 연구단은 초연결(빅데이터)과 초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며, 미래 의료기기 산업을 이끌 창의적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BK21 교육연구단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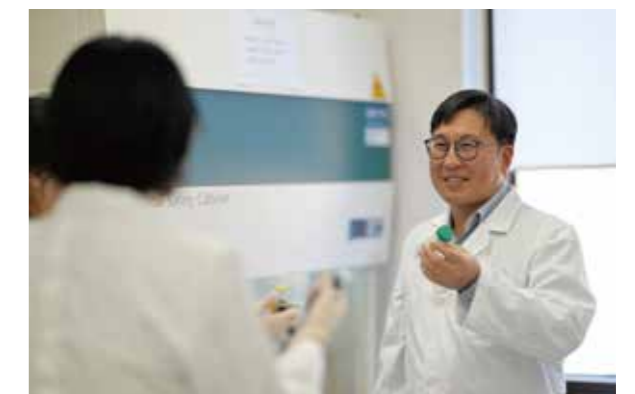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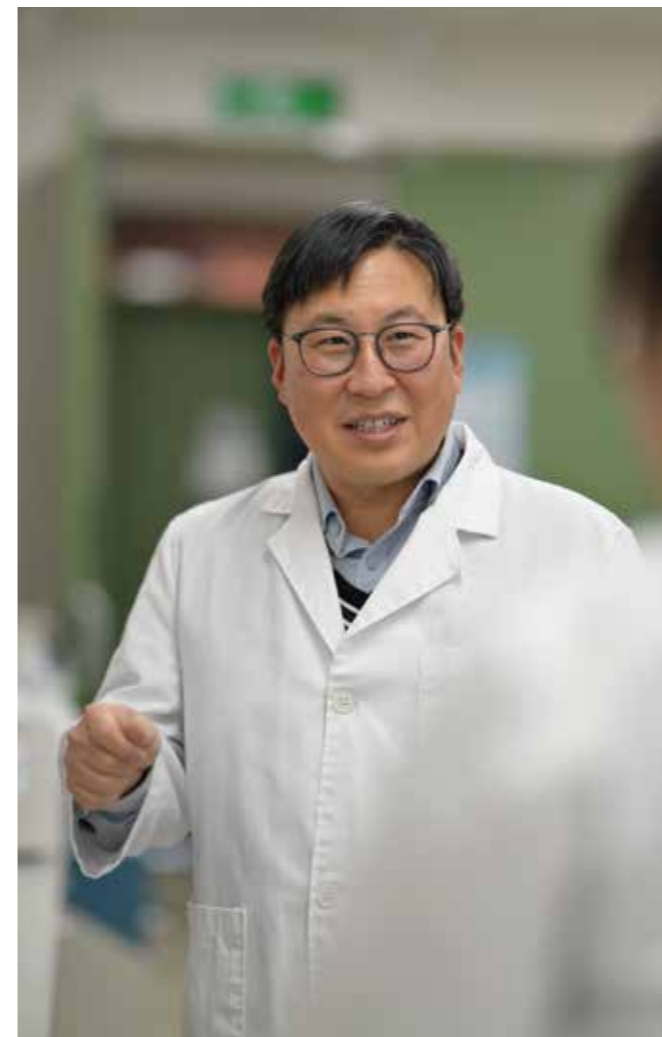
바이오 재난 해결형 전문인재 교육연구단

바이오 재난 해결형 전문 인재 양성

생명과학기술학과 | 박준수 교수팀

생명과학기술학부 박준수 교수 연구팀은 바이오 재난 해결형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바이오 재난의 원인이 되었던 바이러스, 세균, 외래종 등에 대해서 폭넓은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팀은 간단하게 CARE를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C는 classification(분류), A는 action(진단, 방제), R는 resolution(해결 방법), E는 evaluation(평가, 환류)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 재난에 대처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BK21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의 장학금, 인건비 등이 많이 올랐고, 옷장, 강의용 대형 스크린 설치 등 연구 환경도 크게 개선됐다.

한편 연구팀은 녹차와 홍차에 함유된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와 데아플라빈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에 필수적인 단백질 절단 효소(3CL-protease)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 빅데이터와 AI 융합으로 지역 혁신

전산학과 | 성태응 교수팀

전산학과 BK21 교육연구단은 '지역 혁신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SW 융합 교육연구단'을 비전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핵심 축으로 한 융합 교육과 연구를 통해 강원권 미래 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사업단은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산학연병관(산업·학계·연구·병원·공공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원으로서의 도약과 SW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고신뢰 컴퓨팅,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 계산과학 생체 모델링 등 핵심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심화 교육과 전면 영어 강의를 운영하며, 연구 부문에서는 다학제 융합 연구를 추진하여 지역 산업 현안 해결형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및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실증 연구를 추진하며 산학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기반 연구 성과를 세계로 확장하는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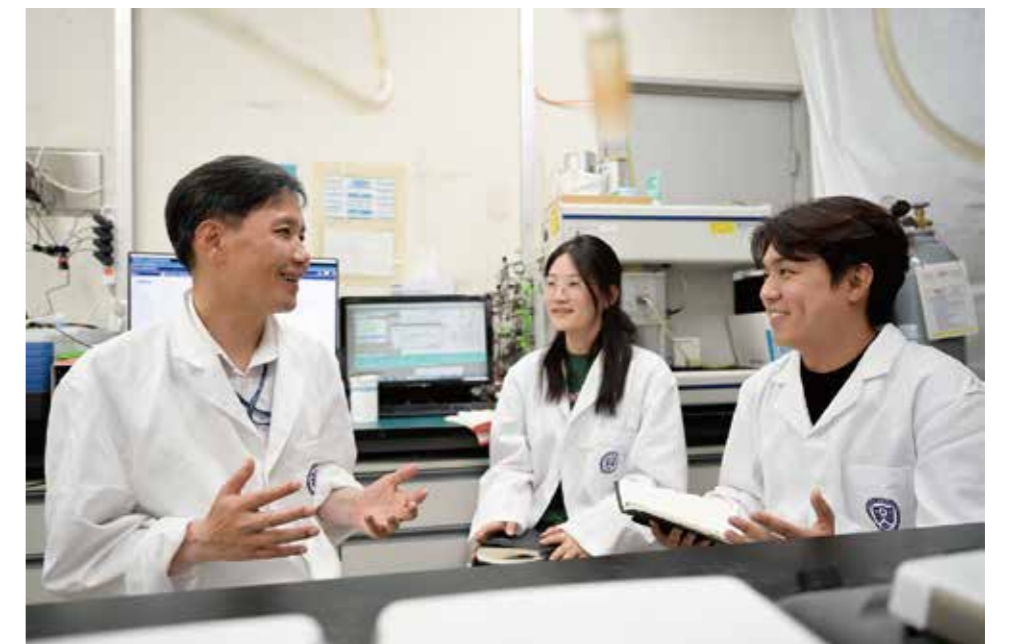
최고급 혁신 융합 인재 양성

환경에너지공학과 | 노현석 교수팀



환경-에너지 융합 교육연구단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연구 수월성 확보'와 '네트워킹을 통한 세계화'를 비전으로, 에너지 문제와 결부된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할 석박사급 최고급 혁신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연구단은 미래 기반 맞춤형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을 핵심 추진 전략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AI 기반 연구방법론 교육과 에너지 인력 양성 교과 체계를 구축하고, 전 과목 전임교원 강의 및 영어 강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국제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연구 운영을 통해 교육연구단은 SCIE 논문, 특히,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등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교육연구단 참여 인력이 「4단계 BK21사업 우수 참여 인력」으로 선정되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표창을 받는 등 사업단의 인재 양성 성과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BK21 교육연구단 ⑤

글로벌 위기 시대의 지역사회 혁신과
새로운 공공 거버넌스 교육연구단

글로벌 복합 위기 시대, 지역사회 혁신 이끈다

행정학과 | 한상일 교수팀

글로벌 복합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 지역사회 혁신과 공공 거버넌스 연구를 선도하는 교육 거점이 주목받고 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행정학과와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은 '글로벌 위기 시대의 지역사회 혁신과 새로운 공공 거버넌스 교육연구단'을 비전으로, 2020년 대형 교육연구단에 선정된 이후 전문 인재 양성에 힘써 오고 있다.



교육연구단은 국가 간·지역 간 불평등, 감염병 확산, 기후 위기 등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연대성·혁신성·융합성·수월성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석박사급 연구자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전 과목 영어 강의를 시행하며 국제적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학에 국제개발·보건학·사회적경제를 결합한 문제해결형 융합 교육을 운영 중이다. 연구 성과 또한 두드러진다. 국내 31개 지역사회 관련 자료 6,700여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역 문제 해결에 이바지했으며, 참여 대학원생들의 SSCI급 논문은 모두 Q1 저널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뒀다. 졸업생들 역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며 교육연구단의 글로벌 수월성을 입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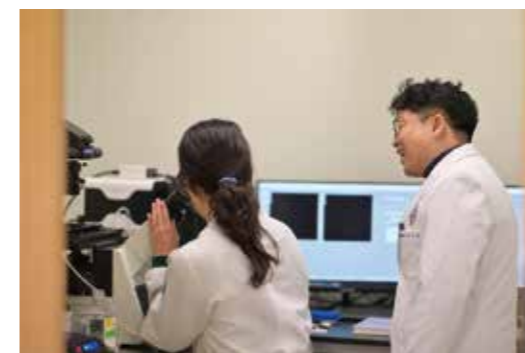
BK21 교육연구단 ⑥

미래 의과학 선도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융합과 혁신으로 여는 미래 의과학

글로벌의생명학과 | 차승규 교수팀

글로벌의생명학과 BK21 교육연구단은 미래 의과학과 첨단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융합형 연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출범했다. 교육연구단은 Y.ON.SE.I(Yield Excellence, Opening New Frontiers, Strategically Empowering Societal Solutions, Innovating Global Impact) 비전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 역량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 글로벌 도전 정신을 갖춘 차세대 의과학자 육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와 국제 협업 역량을 갖춘 실전형 연구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연구단은 교육 역량 강화와 연구 경쟁력 고도화를 양대 축으로 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BK21 대학원생 전용 연구·교육 공간 조성, 단계별 연구 점검 시스템 운영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을 강화했으며, 시 융합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외 의료기관·기업·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며 연구 네트워크를 넓혀 가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첨단 바이오·의료 기술 개발과 국제 학술 교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의생명학과 BK21 교육연구단은 앞으로도 산학연병 연계를 강화하며 미래 의과학을 이끌 혁신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창의 융합 연구로 의료방사선 분야의 글로벌 미래 가치를 잇다

방사선융합공학과 BK21 교육연구팀은 원주 지역 전략 산업인 의료 AI·반도체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의료방사선 분야 미래 가치 창조'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연구팀은 국제 의학물리전문인 교육과정 인증을 획득하고, 해외 우수 대학과 연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국제 경쟁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기업이 직면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산학 공동연구와 현장 밀착형 실무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전형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선순환 교육·연구 생태계를 확립했다. 이러한 현장 중심 연구 전략은 연구 수월성 제고는 물론, 기술 이전 및 사업화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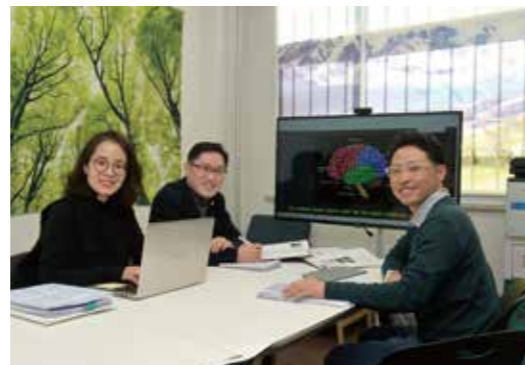


글로벌 노인 웰니스 케어 선도

물리치료학과 BK21 교육연구팀은 '노인 맞춤형 디지털 웰니스 케어 전문 인력 양성'과 'Global Top 50 지역사회 노인 웰니스 분야 진입'을 목표로 지난 1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팀은 ▲움직임 분석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영상 정보 채굴(데이터 마이닝) ▲지역사회 노인 건강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 헬스케어 및 AI 기반 로봇 개발 등 4대 전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교수 1인당 평균 8.2편의 논문 발표, 국외 공동연구 목표 대비 5.7배 초과 달성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며 연구팀의 역량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고령자 인지 건강 증진과 사회통합 실현

작업치료학과 BK21 교육연구팀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 건강 증진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연구팀은 고령자의 사회적 소외 문제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빅데이터 기반 인지 건강 모델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노인 인지 건강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연구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빅데이터 기반 전문 인재양성,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 도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사회통합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연구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인지·뇌과학 분야에서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과 fNIRS 기반 전두엽 활성화 측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라이프스타일 재설계 중재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에서 세계로: 미래 보건의로 연구 인재의 양성

보건행정학과 BK21 교육연구팀은 보건의로 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겸비한 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을 비전으로 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로 문제 해결과 국제 연구 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융복합, 국제화,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연구팀은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해외 대학과의 국제 공동연구와 국내 보건의로 분야 주축 기관들과의 협력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교육연구팀 연구진이 16건의 연구과제를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성과로 국제 저명 학술지 16편을 포함한 43편의 학술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국제 학술 대회 15건, 국내 학술대회 14건의 연구 발표를 통해 연구 성과의 확산과 국제적 학술 교류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의로 정책 및 관리 분야의 근거 기반 의사결정에 기반한 글로벌 보건의로 문제 해결형 전문 인력 양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근대 한국어문학 연구의 새 지평

국어국문학과 BK21 교육연구팀은 근대 시기 한국어문학에 집중한 차별화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창의적·융합적·국제적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기존 국어국문학의 전통적인 전공 구분을 넘어, 텍스트·미디어·언어를 핵심 축으로 한 새로운 교과과정 시스템(MTL)을 구축하며 근대 한국어문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자료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 학풍을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고전·현대·국어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 혁신을 통해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러한 연구 역량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참여 교수 양정석 교수는 제70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인문학 분야)을 수상하며 학문적 수월성을 인정받았고, 참여 대학원생들 또한 단과대 최우수·우수·장려 논문상을 받으며 연구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학 학문 활동의 핵심은 논증

언젠가 강의평가를 보니 '잦없음'이라고 적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는 언어 요소를 자료로 하여 전개하는 논증 과정에 얼굴이 상기된 채로 열중하는 사람들도 한 그룹을 이룹니다. 대학에서 학문 활동의 핵심은 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국문과 외에도 전산학과, 수학과, 디자인학과 학생들도 제 수업을 들으면서 문법적 현상을 소재로 하는 논증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르치는 보람을 느낍니다. 저의 경우도 대학 때 학과 공부는 별로 열심히 하지 않고, 철학과의 과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박동환 선생님으로부터 논리학을 배웠고, 박동환 선생님의 다른 과목들을 들으면서 분석철학의 흐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분석철학, 언어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등의 과목을 수강했는데 이때의 분석철학과 기호논리학에 대한 이해가 나중에 형식의미론의 논리적인 방법론을 익히고 심화시키는 데 자양분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가 되었을 때 조금은 덤덤했습니다. 나를 관장한 상을 꽤 받은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글학회 '우수 논문상'이나 국어학회의 '심약국어학자술상' 등은 전공과 관련된 학문 분야에서 받는 것이지만, 대한민국학술원상은 전공 학회를 뛰어넘는 좀 더 특별한 의미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니까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의 노력... 한국어 문법의 전 범위

이번에 받은 학술원상 수상의 대표 업적인 『한국어 형식문법』은 2023년 12월 발간되었는데, 모두 13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8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대략 2014년부터 형식체계로서의 '형식문법'의 기술을 목표로 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책을 집필한 기간은 10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글 중에 '연구에 투여된 시간과 노력이 예외적'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아마도 형식문법(특히 형식의미론) 연구의 문제 해결 과정이 가설적 주장을 형식화해서 제시하고, 그 증명을 해 나가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한다는 것을 심사위원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의미론의 증명 과정은 수학의 증명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한국어 형식문법』은 한국어의 구문 현상 중 형식의미론적 분석이 주어지지 않은 현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어 문법의 전 범위를 다루었으므로, 한국어 문법 연구의 어느 저작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많은 시간이 투여되었다는 평가는 틀리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가설 연역적 통사론·의미론 통합 최초의 시도

최현배 선생의 1937년의 『우리말본』은 당시로서는 가장 발달된 언어학 방법론에 입각한 한국어 문법의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말본』은 분류론적 문법으로서 형태소, 단어, 구, 절, 문장의 분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의 『한국어 형식문법』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발달된 언어학 방법론에 입각한 한국어 문법의 기술입니다.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문법은 수학의 대수체계나 기호논리학의 논리 체계와 같은 형식체계로서, 『한국어 형식문법』은 이런 형식체계를 가설로 제시하고, 한국어의 구체적인 문장의 예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가설 연역적 방법의 문법입니다. 생성문법 연구자들에 의해서 한국어의 통사구조에 대한 가설 연역적 방법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가설 연역적 통사론과 가설 연역적 의미론을 통합한 이론 체계로서의 한국어 문법 기술은 『한국어 형식문법』이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국어학자들이 학교문법의 서설을 정제하는 일을 주요 과제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문법의 연구가 과학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설 연역적 연구로 전환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의 다른 책 『한국어문법론』(한국문화사, 2025)을 정독하기를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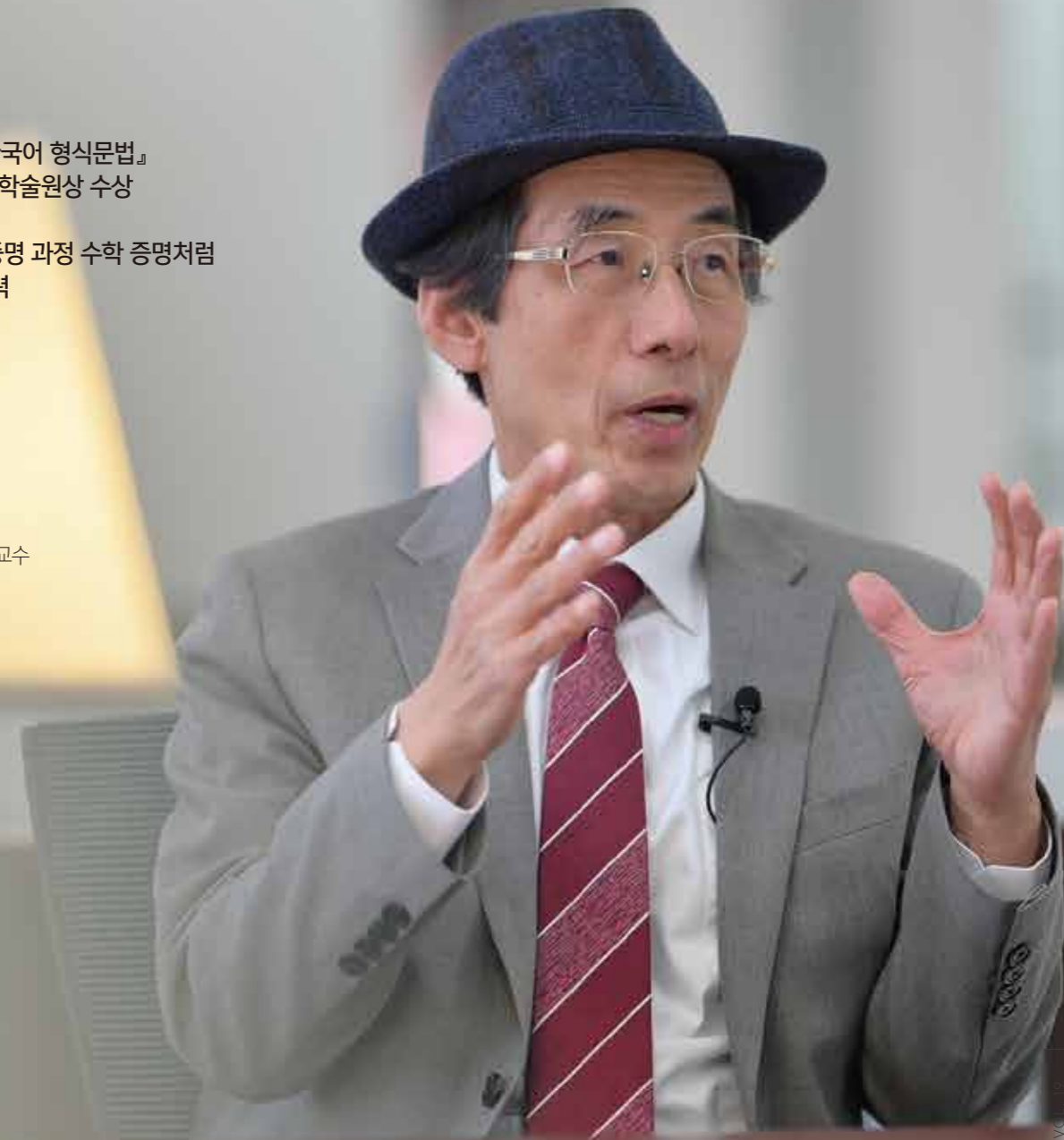
가설 연역적 연구로의 전환 필수

10년간 집필 『한국어 형식문법』
2025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상

형식의미론의 증명 과정 수학 증명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

양정석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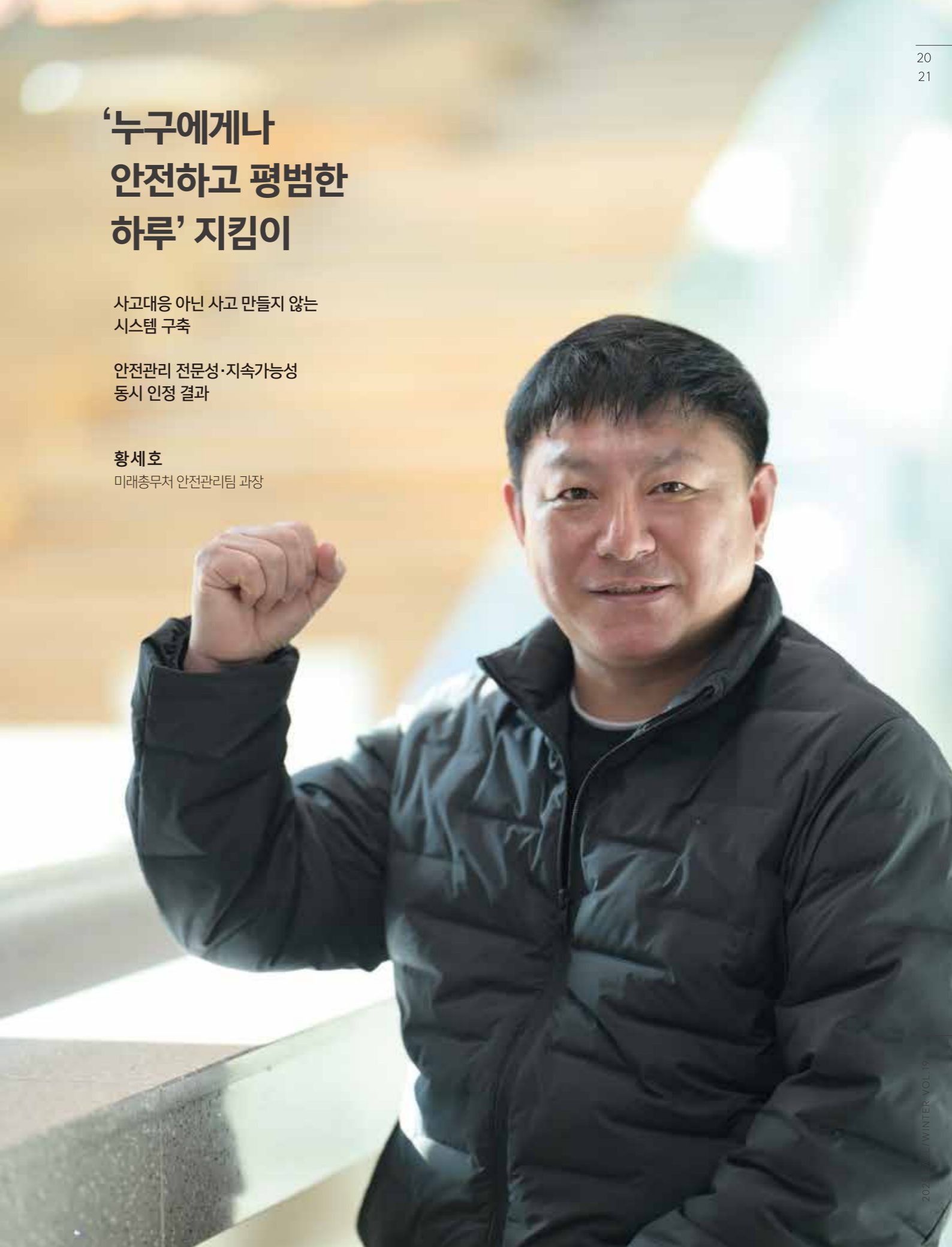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평범한 하루’ 지킴이

사고대응 아닌 사고 만들지 않는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전문성·지속가능성
동시 인정 결과

황세호

미래총무처 안전관리팀 과장



업무 부담이 아닌 연구 경쟁력 인식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안전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야 합니다.” 저의 철학은 제도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연구실 위험도 등급제, 사전 유해 인자 위험 분석 제도, 안전 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 분기별 수시 안전 점검, 연구실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공모전 포함), 찾아가는 연구실 안전 간담회 등의 도입은 모두 ‘연구자가 스스로 안전을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를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단순 점검이나 지적이 아닌, 연구 현장의 흐름을 이해한 제도였습니다. 그 결과, 미래캠퍼스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12개의 우수 연구실 인증을 취득했고, 2025년에는 2개 연구실이 추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안전이 ‘업무 부담’이 아닌 ‘연구 경쟁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대학 최초, 국제 인증 동시 취득

2025년, 미래캠퍼스는 국내 대학 최초로 ISO 45001(안전보건경영 시스템)과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이 성과 뒤에는 수년간의 기록 정비, 절차 표준화, 부서 간 조율이 있었으며, 인증 자체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인증은 결과고, 진짜 성과는 우리 안의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같은 해, 연구실 안전 전담 조직(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2억 7천만 원의 국고 지원을 확보했고, 연구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실험실 안전 장비와 인프라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는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안전관리의 성공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

2025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연구실 출입문 방화문 교체(21개소), 안전 장비(폼후드, 밀폐형 시약장, 기타 등) 지급, 가스누출감지기 검교정, 연구실 바닥 안전 라인 설치, 연구실 안전 정보 게시판 화학 약품 QR코드 부착, 연구 활동 종사자 건강검진(일반, 특수), 흥업 119안전센터와의 화재 및 폭발 사고 대응·훈련까지, 이 모든 작업의 공통점은 사고 이후가 아닌, 사고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안전관리의 성공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 그리고 안전관리팀에서 축적한 전문성은 ‘사고대응’이 아닌 사고를 만들지 않는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직 연구실 안전이라는 한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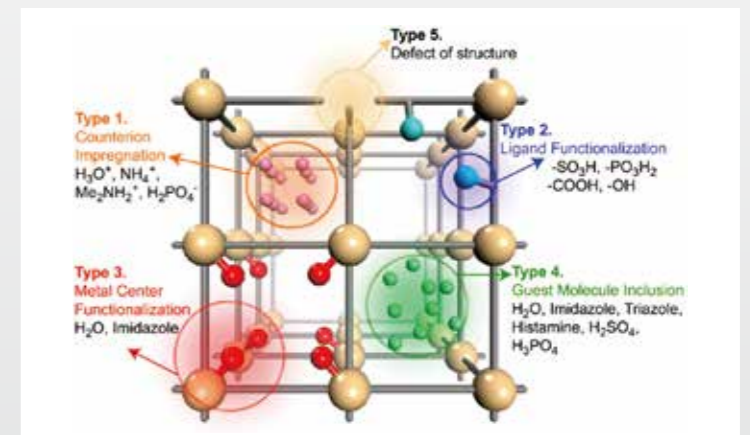
실험실의 하루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 조용함이 당연하게 유지되기까지, 누군가는 늘 한 발 앞에서 위험을 점검하고, 제도를 설계하고, 사람을 설득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안전관리팀입니다. 그 팀에서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실 안전이라는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화학및의화학과 임대운 교수팀 온화한 조건에서도 높은 양성자 전도 효율

차세대 양성자 전도체 설계 가능성 열어
핵심은 금속 유기 골격체
(Metal-Organic Frameworks, MOFs)

임대운 교수 연구팀이 Madhab Das 교수(IIT, Kharagpur) 연구팀과 금속 유기 골격체 (Metal-Organic Frameworks, MOF)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온화한 조건에서도 높은 양성자 전도도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고체 전해질을 제시했다. 기존 양성자 전도체 연구가 고온·고습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전도도 확보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이번 연구는 구조 설계를 통해 중간 온도 조건에서도 효율적인 양성자 이동이 가능함을 보여 준 점이 특징이다. 연구팀이 설계한 MOF 구조체는 은 원자와 유기 분자가 형성한 2차원 골격 사이를 인산 작용기가 수소 결합으로 연결한 형태로, 인산 작용기에 포함된 다수의 산소 원자가 양성자 이동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이동 가능한 양성자 농도가 증가하고, 구조 전체에 연속적인 이동 경로가 확보돼 온화한 조건에서도 높은 전도 효율을 나타낸다. 이번 성과는 고가의 고분자 전해질에 의존해 온 기존 연료전지 기술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분말 형태로 합성되는 물질 특성상 박막 제작 기술과 입자 간 전도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상용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다공성 금속 유기 골격체를 이용한 고체 양성자 전도체 설계 전략



의공학과 이다솔 교수팀 빛과 의공학의 만남

차세대 초정밀 광·바이오 센싱 기술 선도
의료·웨어러블을 위한 스마트 열관리 소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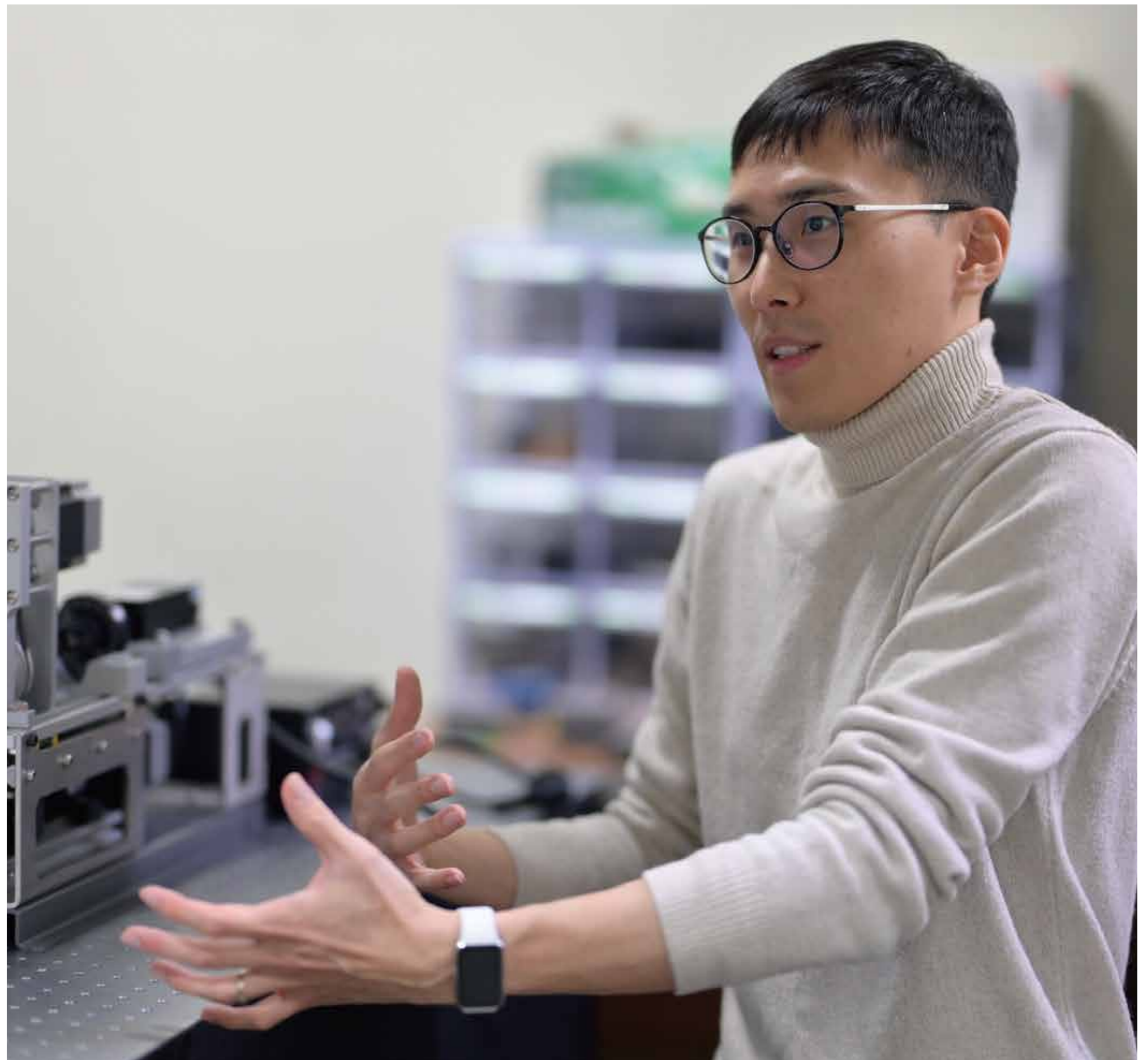
의공학부 이다솔 교수와 바이오-나노포토닉스 시스템 연구실은 나노포토닉스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및 바이오 센싱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장·적용하며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연구팀은 건축물 및 대면적 구조물 중심으로 활용되어 온 복사냉각 기술을 의료·웨어러블 분야로 확장하여, 기능성 나노섬유 기반 복사냉각 필름과 웨어러블 기기용 열 보호 소재를 개발하였다. 해당 기술은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 태양 복사 및 적외선 방출 특성을 제어함으로써,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온도 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및 웨어러블 장치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사용자 착용 환경의 쾌적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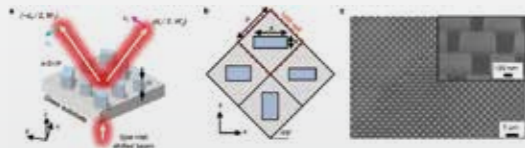
이울러 연구팀은 메타표면을 활용한 약 측정 기반 광 스피ن 홀 효과의 실시간 관측 기술을 개발하였다. 기존에 반복 측정이 필요했던 미세 광학 현상을 단일 프레임에서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차세대 초고속·고감도 광 센싱 및 바이오 이미징 기술로의 확장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해당 연구는 유명 국제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되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바이오-나노포토닉스 시스템 연구실은 기초 광학 연구부터 응용 기술 개발, 시스템 통합 연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연구 역량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노포토닉스 기반 의료 플랫폼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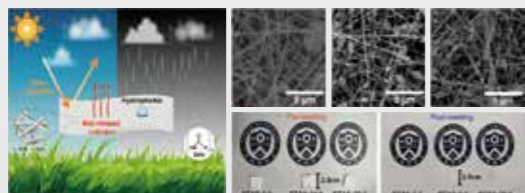
이다솔 교수는 “나노포토닉스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정밀성, 안정성,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기반 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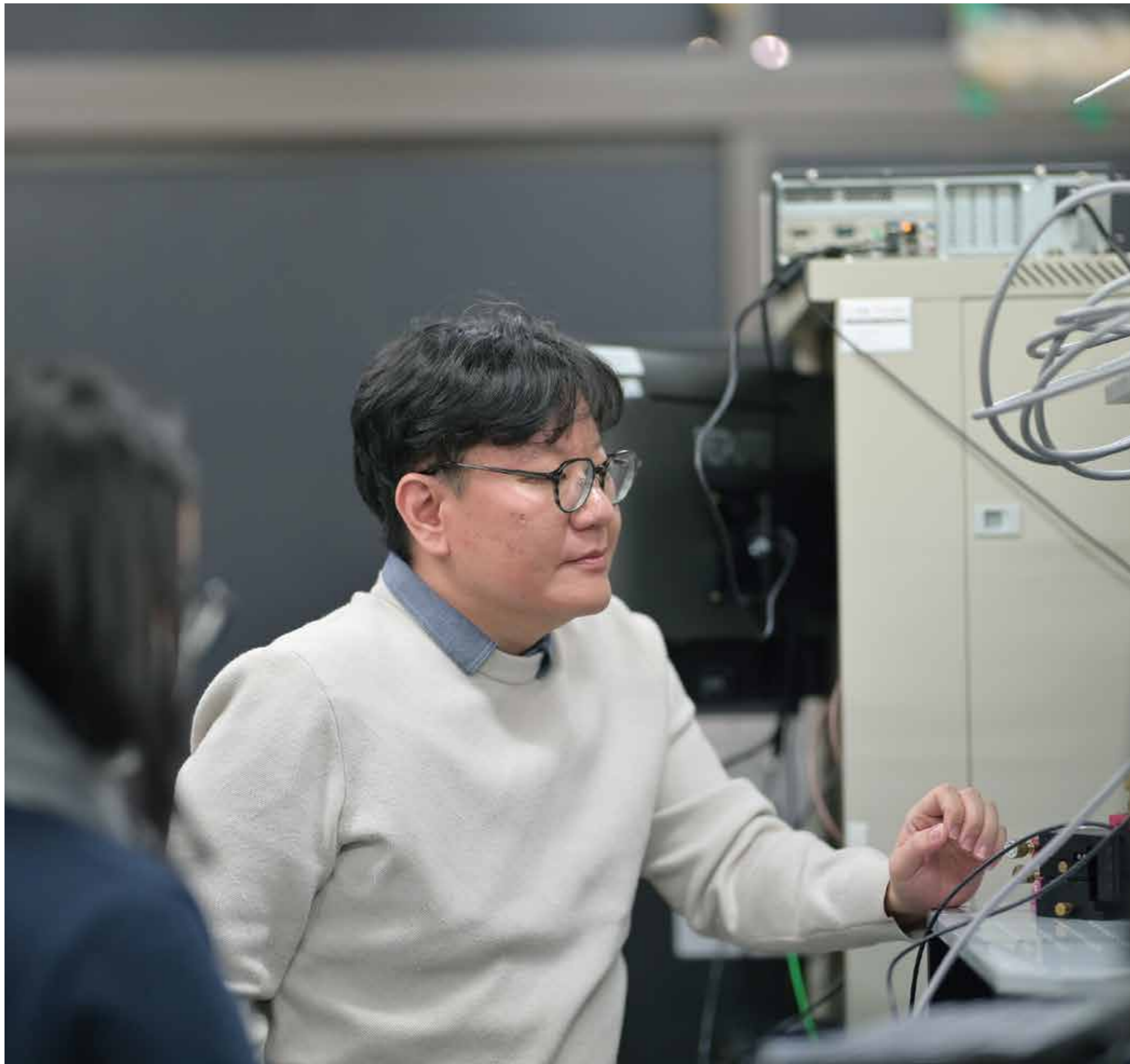


—
차세대 초정밀
광·바이오
센싱 기술 선도



—
의료·웨어러블을
위한 스마트 열관리
소재 개발





SI반도체학부 정광식 교수팀 SI 반도체 혁신의 토대

반도체 소자 결함 정밀 규명 ...
산학 잇는 미래 반도체 신뢰성 연구

연세대학교 SI반도체학부 정광식 교수 연구팀은 반도체 소자의 결함을 정밀하게 규명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기반으로, 차세대 SI 반도체의 성능과 신뢰성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 원천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소자 미세화와 고집적화가 가속화되는 반도체 기술 환경에서, 결함은 소자의 성능 저하와 신뢰성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물리 기반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연구팀은 전기적 특성 분석을 통한 결함 정량분석을 중심으로, 소자 내부와 계면에서 발생하는 결함 밀도, 결함 준위, 전하 트래핑 거동을 정밀하게 규명하고 있다. 실험적으로 관측된 결함 특성은 밀도범함수이론(DFT)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자 수준에서 해석되며, 이를 통해 결함의 기원과 전자구조 변화 메커니즘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이론 결합 접근은 기존 경험적 분석을 넘어, 예측 가능하고 재현성 높은 반도체 결함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정 교수 연구팀은 비선형 광학 기법인 제2고조파 발생(Second Harmonic Generation, SHG)을 활용하여 반도체 계면에서 형성되는 전기장을 비파괴적으로 평가하는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SHG 기반 계면 전기장 분석은 기존 전기적 측정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계면 비대칭성, 전하 분포, 내재 전기장을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어, 차세대 반도체 소자의 계면 결함과 전기적 불균일성을 규명하는 강력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2025학년도 2학기 캠퍼스 주요 소식

YONSEI MIRAE VISION 2035 수립

VISION 2030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주요 정책과 기관 평가 인증·재정 지원 사업 계획을 연계하여 우리 대학의 다음 10년을 이끌 YONSEI MIRAE VISION 2035를 2025년 7월 10일 확정했다. 교육 환경 변화 등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발전위원회, 대학발전위원회, 대학발전추진위원회, 협력·소통위원회 및 이사회 등 총 126회의 회의 결과와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원·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YONSEI MIRAE VISION 2035는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대학'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교육 ▲지산학 ▲연구 ▲글로벌 ▲경영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대학의 도약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AX(Advanced eXperience) 기반 교육혁신, 지역과의 동반성장, 연구 역량 고도화, 참여·소통 중심의 경영 체계 구축 등의 실행 과제를 통해 앞으로 VISION 2035를 중심으로 교육·연구·산학의 성과를 더 선명하게 연결하며 혁신 대학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영역별 포럼

대학혁신지원사업 영역별 포럼이 데이터·디지털·AI 기반 혁신을 주제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됐다. 성과관리·제도 기반, AI 기반 학생 지원, AI 혁신 수업 확산, RC교육 혁신, 학사제도 유연화를 주제로 '함께 만드는 대학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포럼에서 모인 의견은 향후 정책과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져, 혁신 과제가 캠퍼스 전반에 체감될 수 있도록 적용될 예정이다.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 성과 공유회

미래캠퍼스 대학원은 2026년 1월 26일 컨버전스홀에서 「2025학년도 4단계 BK21 대학원혁신 성과공유회 M.I.N.D」를 열고, 대학원 연구와 교육 성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대학원생과 교직원 300여 명이 참여해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소개하고, 각 교육연구단의 활동을 공유했으며, 강연과 토론을 통해 앞으로 대학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대학원생이 직접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 연구 경험을 나누고 배움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RISE사업단 발대식

우리 캠퍼스가 2025년 9월 11일 RISE사업단 발대식을 열고 강원 지역혁신을 이끄는 거점대학으로 본격 출발했다. 강원 RISE 11개 과제 수주로 5년간 총 57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스타트업 허브·평생교육 체계·의학교육 혁신 등 강원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발대식 현장에서는 강원도·원주시·지역 대학·유관 기관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우리 캠퍼스는 교육과 연구, 산학 협력을 연결해 지역 산업과 일자리, 인재가 선순환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우리 캠퍼스 행정조직 개편

2025년 9월부터 행정팀제 도입과 전면 조직 개편을 통해 더 빠르고 유연한 행정 체계를 구축했다. 부서 기능 재정비, 위원회 신설, 대학(원) 행정팀 통합 등으로 효율적 의사결정과 공정한 평가 기반을 강화하며 행정 혁신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현장의 업무 흐름을 단순화하고 협업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 미래교무처·미래입학처·미래학생복지처·미래총무처 개편 ▲ 미래융합교육혁신원, 시융합과학원 명칭 변경 ▲ 미래윤리인권위원회 신설 ▲ 원주박물관의 미래학술정보원 산하 이동 ▲ 대학(원) 행정팀 통합 ▲ 일부 재정지원 사업단 폐지 등이다.



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선정

우리 대학이 우수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의 정착을 지원하는 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으로 선정되어 1월 26일 교내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생활·경력·비자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강원 지역의 글로벌 인재 유치 거점 역할을 높여 간다. 이번 선정은 우리 캠퍼스의 국제화 기반과 연구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 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우수 인재가 연구와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촘촘히 마련해,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도약을 한층 더 앞당길 계획이다.

2025년 제1차 '강원지역대학 총장협의회' 개최

강원지역 9개 대학 총장들이 10월 28일 우리 캠퍼스에 모여 지역 고등 교육 협력과 강원 RISE 운영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대학이 지역 생활 인프라의 거점이 되는 학교 복합 시설 정책 방향 등 실질적 협력 의제가 공유되며, 대학 간 연대가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회의를 통해 지역 현장의 고민과 개선 과제가 공유되며 '함께 풀어나가는 해법'의 방향이 구체화됐다.



원주박물관 특별전 '不朽之緣 - 돌아온 원주 문화유산'

원주박물관이 2025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반출 문화유산의 기록과 귀환의 의미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개최했다. 지방국사탑 귀환 사례, 국내 최초 공개 고서 목록, 고려 동종 특별 전시 등으로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환수와 보존의 중요성을 시민과 함께 나눴다. 이번 전시는 '돌아온 유산'뿐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산의 현황도 함께 보여 주며 공감과 관심을 이끌었다. 앞으로도 원주박물관은 지역 문화 자산을 교육·연구·전시로 연결하는 열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넓혀갈 계획이다.



태국 출라브혼 왕립학원 공동 세미나·MOU 체결

우리 캠퍼스는 태국 출라브혼 왕립학원과 손잡고 디지털 헬스케어·의료 데이터 융합 연구 협력을 본격화한다. 양 기관은 12월 15일 태국 방콕에서 공동 세미나와 MOU를 체결하고 연구자·학생 교류, 단기 임상 연수, 공동 심포지엄 및 프로젝트 등 국제 공동연구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 해 나가기로 했다. 세미나에서는 AI 기반 보건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임상 워크플로우 혁신 등 최신 연구 흐름을 공유하며 협력 가능성을 넓혔다. 향후 양 기관의 강점을 결합해 실제 연구 성과와 인재 교류로 이어지는 '실행형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KOICA 모잠비크 보건 고위직 공무원 초청 연수

지구건강연구소는 KOICA 글로벌 연수 사업의 하나로 모잠비크 보건부 고위 관계자를 초청해 보건 프로그램 기획·관리 역량 강화 연수를 2025년 9월 8일 진행했다. 강의·워크숍과 함께 주요 기관 현장 견학, 실행 계획(Action Plan) 도출까지 이어지는 실무형 과정으로 국제보건 협력의 현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보건 의료 시스템과 정책 기획 모델을 학습하고, 자국 상황에 적용 가능한 개선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보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실천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RC 명사 특강

RC융합대학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초청해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깊이 있게 나누는 특강을 2025년 9월 17일 정의관 대강당에서 가졌다. 2025-2학기 첫 RC명사특강에는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강연 이후 이어진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확장된 시야를 제공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현장의 열기는 강연 이후에도 이어져, 학생들이 추천 도서부터 사법부의 역할까지 폭넓게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의료 AI 솔루션 오프라인 경진 대회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FPGA 설계와 GPU 기반 AI 솔루션 경진 대회를 2025년 11월 개최했다. 멘토링과 실습을 바탕으로 의료 현장 적용 아이디어를 겨루며, 학생들이 의료 AI-반도체 실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장의 장이 됐다. 참가팀들은 의료 관련성을 갖춘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로 완성도를 높였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실용성과 확장 가능성을 평가받았다.



엔비디아와 'RTX AI PC 캠퍼스 세미나'

AI융합과학원은 엔비디아와 함께 2025년 9월 29일 정의관 대강당에서 온디바이스 AI·소형 LLM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9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 특히 '내 PC에서 AI를 실행하는 경험'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며 실무 감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2025 퇴임 교수의 날

미래교무처는 퇴임 교수님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캠퍼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나누는 '퇴임 교수의 날' 행사를 11월 5일 교내 컨버전스홀과 현운재 예나키친에서 개최했다. 환영식과 오찬, 캠퍼스 투어를 통해 따뜻한 교류가 이어지며, 세대와 경험이 연결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특히 퇴임 교수님들과 구성원이 함께 캠퍼스 발전 현황을 공유하며 '지속되는 연세'의 가치를 다시 확인했다.

겨울방학 연세머레이캠프 출정식

연세머레이봉사단이 2025년 12월 19일 교내 미래관에서 250명의 학생 봉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방학 봉사활동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5개 팀이 6주간 지역 현장을 찾아 교육·문화·환경·의료·SI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나눔과 실천의 캠퍼스 가치를 지역과 함께 확산한다. 우수 봉사자에게 시상하고 함께 활동 방향을 공유하며, 봉사단의 각오와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국내 대학 최초 ISO 45001·14001 동시 취득

우리 캠퍼스가 2025년 10월 국내 대학 최초로 ISO 45001(안전보건)과 ISO 14001(환경) 국제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 대학 운영 전반의 안전·환경 관리 체계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ESG 기반의 책임 있는 캠퍼스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증은 '안전한 캠퍼스'와 '지속가능한 캠퍼스'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체계가 갖춰졌음을 보여 준다.



연세예술원 <림시교원> 키프로스 국제영화제 3관왕

연세예술원 첫 졸업작 장편 영화 <림시교원>이 2025년 9월 27일 키프로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과 연기상 부문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했다. 학생들이 제작 전 과정을 주도한 초저예산 프로젝트가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거두며, 현장형 창작 교육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남북한 문화적 간극과 윤리적 선택을 다룬 서사가 호평을 받았고, 주조연 배우로 참여한 학생들도 연기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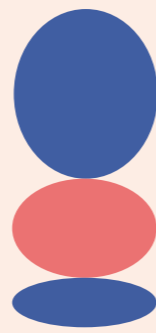


캠퍼스에서 즐기는 클래식 공연, 연세콘서트시리즈

2025학년도 2학기 연세콘서트시리즈는 피아니스트 선율, 뷔에르 앙상블, 마스터즈 온 첼로 리사이틀로 진행됐다. 지역 사회와 대학 구성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연세콘서트시리즈는 관객 만족도가 90% 넘는 품격 있는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피아니스트 박진형+이택기, 호른니스트 김홍박, 소프라노 강혜정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회차	날짜	공연명
125회	2026. 3. 30 (월)	피아니스트 박진형 X 이택기 듀오 리사이틀
126회	2026. 4. 28 (화)	호른니스트 김홍박 리사이틀
127회	2026. 5. 12 (화)	소프라노 강혜정 리사이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용칠 | 환경에너지공학부 명예교수

퇴임 교수의 날 행사에서 발전기금 2천만원 기부, 누적 기부액 8천여만 원

서용칠 명예교수는 재임 기간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연구비 200억 원 이상을 수주하고, 석사 43명·박사 20명을 배출하는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성서의 말씀과 연세대학교를 통해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이미 누린 사람으로서, 퇴임교수의 날 행사에 학교 현황을 들으면서 미래캠퍼스를 위해 애쓰시는 교직원/학생 여러분들의 수고와 활동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보고, 감사의 마음이 생겨서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김OO 대표

김OO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전해졌다. 학교 앞 매지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웃으며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김OO 대표님은, 사랑스러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도서관발전기금 기부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약 10년간 매달 5만 원씩 모은 정성은 학생들이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길 바라는 뜻과 함께 전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전하고 싶었다”는 말씀과 함께 총 7,015,689원을 학교에 맡겨주셨다.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던 이 조용한 나눔은, 오늘도 도서관에서 꿈을 키워 가는 학생들의 미래를 마음 깊이 응원하고 있다.



지안나 | 학부모대학발전위원회 2023-2024 회장

등지장학금, 미래캠퍼스발전기금 기부, 누적 기부액 1천7백여만 원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대학발전위원회 전 회장 지안나입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에 아이가 입학하며 처음에는 그저 한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의 건강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교 곳곳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열정과 교수님들의 헌신을 마주하며 제 마음에도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부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육의 발전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믿음이 저를 기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 작은 정성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져, 더 많은 분들이 이 뜻깊은 동행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부자명단

2025.8.1.~2025.12.31.(입금액 기준)

기부자명	기부금액(원)	기부자명	기부금액(원)	기부자명	기부금액(원)
우리은행 원주금융센터	180,000,000	윤석중(학부모)	500,000	박희범(환경공학05)	50,000
NITORI INTERNATIONAL	100,000,000	이수정(작업치료학과03)	500,000	임예택(의용전자공학97)	50,000
한국장학재단	35,500,000	경수진(학부모)	500,000	고재일(의용전자공학98)	50,000
서용칠(환경에너지공학부 명예교수)	20,000,000	정정훈(학부모)	500,000	양병주(의용전자공학88)	50,000
연세동문장학회	12,000,000	강태욱(학부모)	450,000	이정훈(의용전자공학96)	50,000
김OO	7,015,689	유은영(작업치료학과 교수)	400,000	배규성(의용전자공학94)	50,000
두산연강재단	6,800,000	놀이봄내연구소(이희정)	400,000	기재홍(의공학부 교수)	50,000
김정운(학부모)	6,000,000	셀렉트원주흥업점	300,000	홍규석(의공학04)	50,000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5,894,000	리기용(철학 교수)	300,000	윤미영(의용전자공학93)	50,000
재단법인인촌	5,570,000	송영호(경경대학원 행정학05)	300,000	온초롱(국어국문학10)	50,000
(재)인산장학문화재단	5,179,200	도서출판아카데미아	268,800	최우리(의용전자공학03)	50,000
(주)한두패키지	5,000,000	송창순(작업치료학99)	250,000	김재현(의용전자공학07)	50,000
(주)영테크팩	5,000,000	김태욱(글로벌행정학07)	250,000	김수정(물리치료학과99)	50,000
정경대학원4기원우회	5,000,000	박혜연(작업치료학과 교수)	250,000	황재훈(경영학부 교수)	50,000
신라문화장학재단	4,394,000	정민예(작업치료학과 교수)	250,000	하은호(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50,000
분슬김중환장학재단	4,316,000	박지혁(작업치료학과 교수)	250,000	이태정(경제학 교수)	50,000
미왕주식회사(청합장학회)	4,316,000	정치순(컴퓨터공학04)	250,000	이충휘(물리치료학과 교수)	50,000
우덕재단	3,713,000	최유나(의용전자공학98)	250,000	이주명(산업디자인학 교수)	50,000
한국도로교통공단	3,000,000	박명배(보건행정학부 교수)	250,000	이범석(RC융합대학 교수)	50,000
프롬유1	3,000,000	정찬문(화학및의화학 교수)	200,000	박창원(직원)	50,000
삼성복지재단	2,600,000	박보나(학부모)	200,000	나성룡(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50,000
SK하이닉스(주)	2,447,000	홍수연(학부모)	180,000	김선명(물리및공학물리학 교수)	50,000
한석경함흥장학회	2,000,000	윤미영(의용전자공학93)	160,000	강승일(미래교목실 교수)	50,000
진우아이엔피	2,000,000	남기창(의용전자공학91)	150,000	이한우(의용전자공학94)	50,000
최형준(의학과07)	2,000,000	조인숙(경제학 교수)	150,000	박영애(직원)	50,000
정인재(패키징최고위과정)	2,000,000	원정희(의용전자공학96)	150,000	김성학(RC융합대학 교수)	50,000
주식회사케이셀(K-cellInc)	2,000,000	강진석(의용전자공학98)	150,000	김아별(물리치료학과06)	50,000
주식회사하이라이트브랜즈	1,611,040	권이석(의공학04)	150,000	김무진(국제관계학00)	50,000
주식회사하이테크코리아	1,000,000	Matsumoto JunKo(학부모)	150,000	김흥준(의용전자공학07)	50,000
해성문화재단	1,000,000	박민수(보건학83)	120,000	정만희(의용전자공학96)	50,000
가성팩	1,000,000	박수현(작업치료학92)	100,000	김대영(의용전자공학92)	50,000
원광케미칼	1,000,000	유민규(의용전자공학98)	100,000	김원종(의용전자공학92)	50,000
김영규(패키징최고위과정)	1,000,000	강모아	100,000	정혜빈(의료시스템공학18)	50,000
대한작업치료교육연구회	1,000,000	김장생(RC융합대학 교수)	100,000	문지민	50,000
(주)세일기연	1,000,000	김은정(학부모)	100,000	이택준	50,000
(주)비앤씨컴퍼니	1,000,000	이장우(학부모)	100,000	임진혁(의료시스템공학12)	50,000
이인재(역사문화학 명예교수)	650,000	박기표(의용전자공학08)	100,000	이범교(의공공학85)	50,000 미만
도서출판사	643,300	김우진(의용전자공학06)	100,000	정호철(의용전자공학99)	
김정현(학부모)	550,000	주식회사코아사이언스	100,000	민숙(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최희진(학부모)	500,000	김진목(학부모)	100,000	김성은, 박준상(물리치료학96)	
지안나(학부모)	500,000	권혜린(학부모)	100,000	이수지(직원), 양광모(의용공학84)	
한영훈(직원)	500,000	김용선(학부모)	100,000	황찬경(직원), 하흥호(직원), 백승엽	
채승진(산업디자인학 교수)	500,000	고형상(미래교목실 교수)	60,000		
오병근(시각디자인학 교수)	500,000	이종훈(작업치료학97)	50,000		
박영철(소프트웨어학부 교수)	500,000	원종임(재활학85)	50,000		
권효정(재활학85)	500,000	유창용(의용전자공학89)	50,000		
임대운(화학및의화학 교수)	500,000	박성빈(의용전자공학93)	50,000		



온라인 약정



기부자애플리케이션

신임 교수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국어국문학과
정한나



과학기술융합대학
생명과학기술학부
김진욱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경영학부
김도운



과학기술융합대학
A반도체학부
오르트나산
에르덴바야르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의공학부
박인수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디지털헬스케어학부
홍원기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임상병리학과
정병출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치위생학과
김한나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시보건정보관리학과
이호철



과학기술융합대학
A반도체학부
임동혁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신민우



과학기술융합대학
A반도체학부
임동혁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행정학부
손창우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의공학부
김호담



글로벌엘리트학부
김진웅



과학기술융합대학
환경에너지공학부
고영진

신임 직원



미래유리인권위원회
심리상담센터
이지영



미래융합교육혁신원
EduTech지원팀
황성경



미래교무처
학사지원팀
이설빈



미래교무처
학사지원팀
신연서



미래총무처
안전관리팀
조현민



미래평생교육원
전예희



미래총무처
안전관리팀
최송현



미래총무처 안전관리팀
이제호



미래기획처
혁신전략기획팀
문한성



미래연구처
연구전략팀
김예지



글로벌창의융합대학
행정팀
장정은



RISE 사업단
박설아



미래총무처
인사총무팀
정영록



과학기술융합대학
행정팀
강수현



RISE 사업단
전예지



미래기획처
재정지원사업총괄센터
김지원



미래총무처
시설관리팀
최종수



RC융합대학
행정팀
방수연



RISE 사업단
백지현



미래기획처
대외협력팀
이수현